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메르켈 전 독일총리의 리더십
[발제자] 양돈선 한선재단 독일연구포럼 대표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90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독일 역시 2021년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었다. 16년 동안 총리직을 맡았던 메르켈이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메르켈은 여전히 존경받는다. 독일은 '메르켈 보유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전 총리인 메르켈은 각종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평가를 받아왔다. 메르켈의 리더십은 무티(Mutti, 엄마) 리더십이라고 말한다. 경청과 소통으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중용과 균형을 통해 중립적인 정책을 했으며 사실을 중시한 원칙과 일관성으로 독일을 발전시켰다. 메르켈이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과 청렴성은 우리 정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도 독일에서 힌트를 얻어 경제·사회 발전에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원한다.

◆ 독일 정치 일반

- 독일은 2021년 12월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취임했다. 기민당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16년의 4연임 후 명예퇴임하였다. 메르켈이 이번 선거에서 물러나면서 정권교체가 되었다. 왜 정권 교체가 되었을까? 메르켈 총리가 퇴임 의사를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기민당 의원의 비리와 기민당 총리 후보가 약체였던 것도 한몫했다.

◆ 금세기 완성형 정치가

가. 메르켈 보유국 독일

- 독일은 메르켈 보유국이라는 말을 쓴다. 메르켈 총리는 동독시절,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물리학 박사였다. 민주개혁 당의 대변인으로 일했으며 통일 후에는 기민당 사무총장, 환경부 장관, 여성 청소년부장관, 최초의 여성 출신 집권당 대표, 최초의 여성 총리,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 등의 최초 타이틀을 달았다. 메르켈에 대한 외부 평가도 뛰어나다. 2015년도 타임스, 파이넨셜 타임즈 등 올해의 인물 선정 3관왕을 했고,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평을 받았다.
- 메르켈은 집권 기간 동안 독일을 한 단계 격상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1인당 국민소득이 18.7% 증가했고 실업률은 10.7%에서 5.1%로 감소했다. 경제규모와 고용은 늘어나고 실업은 줄어든 완전고용을 달성한 것이다. 국제무대에서도 정치적 입지가 격상되었고, 글로벌 공존 외교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다.

나. 무티(Mutti) 리더십

- 메르켈의 리더십은 무색무취이다. 해안이나 비전, 동물적 감각, 직관, 카리스마는 없지만 80% 듣고, 20% 말한다는 경청과 소통이 그녀의 무기다. 15년간 국민과 팟캐스트(Pot cast) 대화를 600회나 할 정도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였다. 독선적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음을 실천했다.
- 메르켈은 중용과 균형을 지켰다. 보수당이나 보수 정책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여성이면서 여성만 대변하지 않았다. 동독 출신이나 동독 우대 정책도 없었다. 슈뢰더 정책을 계승, 발전하며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고 사실을 중시했다. 슈뢰더는 반대당 총리였는데 그 정책을 그대로 반영했다. 메르켈은 선동, 과장, 허세, 쇼맨십이 없었다.

- ◆ 메르켈은 집권 16년의 3/4을 타협의 정치인 대연정을 실현했다. 권력의 절반을 대연정 상대 정상에 양보했다. 장관 14명 중 부총리를 포함하여 6명을 사민당에 양보한 것이다. 그와 함께 타협과 합의를 도출했다. 메르켈이 집권하는 동안 대연정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던 정책이 많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재정위기를 해결했다. 2015년도에 14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했고 탈원전, 최저임금제 대응, 2021년에는 연방의회 연설 중 코로나 준수를 호소했다.

다. 미소 속의 비수(匕首)

- ◆ 메르켈은 청렴, 소신, 단호함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헬무트 콜 총리의 사퇴를 주도했던 것이 그 예이다. 메르켈이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는데 헬무트 콜 총리가 당이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을 때 메르켈은 콜이 물러나야 한다는 언론 기고를 했다. 메르켈은 동독 출신이기에 ‘반공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의심을 받았으나 문서로 반공주의자임을 확인했고 사생활 또한 깨끗하였다.
- ◆ 메르켈은 당내 인사와 당외 인사에게 각각 다른 대처로 권력을 장악했다. 당내 인사에게는 방심(구색 갖추기), 흠결(스캔들, 품위) 이용 등 용의주도한 준비를 하여 처리하였고 당외 인사에게는 침묵, 무대응, 논쟁 기피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렸다.

라. 위기가 키운 세계 지도자

- ◆ 유럽은 각자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유럽과 대화를 하거나 정책을 쓸 때 누가 상대방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메르켈이 집권한 후 메르켈이 유럽의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 메르켈 총리가 유럽 정책을 주도해서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를 메르켈이 구조조정시켰고 2020년 6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잘 사는 유럽나라들에게 기금을 받아 7,500억 유로를 마련했다. 이는 순전히 메르켈 공로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했을 때도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정치경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두지휘했다.
- ◆ 메르켈은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외교에도 능했다. 강대국과 실리·대등 외교를 통해 국제질서의 역학 관계를 최적 활용했다. 미국과 긴밀한 우호, 러시아·중국과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러시아와는 러시아산 가스 안정공급을 위한 기틀 마련을 이해 ‘노르트스트림2’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 메르켈 리더십의 원천

가. 메르켈의 용인술

- ◆ 독일 총리실은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다. 한국 청와대에 비해 소규모 인

력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정운영은 총리실 중심이 아닌 내각, 즉 각 부처 중심으로 움직인다. 총리실은 총리 보좌와 연정 상대 당과의 협의가 핵심이다. 집무실 개방의 날에는 총리 집무실과 총리실 모든 것을 개방하고 시민과 대화, 사진촬영, 어린이 퀴즈대회, 소품 등을 진행한다.

- ◆ 메르켈은 측근 인사인 비서실장 베아테 바우만과 홍보비서관인 예바 크리스티안센을 완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중용하였다. 둘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위험을 사전탐지하며 조기경보를 하는 등, 그림자 보좌와 자유 대화, 이견 제시, 직언과 비판으로 메르켈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다. 이들의 보좌로 메르켈은 민심과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였고 그 결과 성공한 정치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 ◆ 메르켈은 인재 포용력 또한 뛰어난 존경하는 인물이라면 정파와 무관하게 발탁하여 영입했다. 사민당 출신 정치인으로 외교장관 시절 메르켈 총리와 잦은 갈등이 있었던 프랑크 발터 슈타인 마이어는 메르켈의 적극적인 천거로 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나. 메르켈의 윤리 도덕성

- ◆ 메르켈은 재임기간 중 한 번도 비리나 불법 사례가 없었다. 남편도 메르켈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취임식도 불참하였다. 메르켈의 4기 총리 취임식 때는 메르켈의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으나 먼 발코니에서 조용히 보고 그냥 돌아갔다. 메르켈은 굉장히 검소하며 공사 구분이 철저하다. 총리 기간 동안 거주한 사저에는 경호원도 서있지 않고 경찰차 한 대만 덩그러니 있다. 이태리로 휴가를 갈 때 본인은 전용 비행기를 탔지만 남편은 차를 타고 갔었다. 모친의 별세도 장례 완료 후 언론보도가 날 정도로 노출하지 않았다. 메르켈은 스스로 음해성, 가짜 뉴스에서 가족을 지키는데 철저했다.

◆ 결론

- ◆ 메르켈이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과 청렴성은 우리 정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도 독일에서 힌트를 얻어 경제·사회 발전에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원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